

먹을 만한 믿음

롬14:1-4

1.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13:10)'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른 비유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사랑'을 '율법'에 연결시켰을까요?

당시 로마교회의 유대인 개종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격렬히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로마교회는 분열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바울은 13장에서 강조했던 사랑의 원리를 로마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1.1. (관찰) 바울은 유대 정결법을 따라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2)'를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1a: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

1b: 그의 의견을 ()

3a: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

10b: ...어찌하여 네 형제를 ()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은 실제 구원을 얻는 믿음과는 별개로 반대 그룹(강한 자)의 조롱 섞인 호칭으로 보입니다.

1.2. (관찰) 반대로,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고 권면합니까?

3b: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

10a: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하느냐...

1.3. (관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3c: ...이는 ()이 그를 ()

4c: ...그를 () 권능이 ()

10c: ...()가 () 하나님의 () 앞에 서리라

1.4. (나눔1) 바울은 서로 '심판(3,4,10,13)'하지 말고 '환영하라(1)'고 합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 분만이 행동에 대한 판결을 내리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침해 행위'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형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반대로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쉬이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집시다.

2. 5-8절의 '날'은 안식일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여러 주요 절기들을 가리키는 듯 보입니다. '날의 관습'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마저도 '심판'해서는 안 되고 '받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2.1. (관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판단이 다른 문제'라면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고 말합니까?

6a: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 먹으니...

6c: 먹지 않는 자도 () 먹지 아니하며...

7a: 우리 중에 누구든지 () 사는 자가 ()

7b: () 죽는 자도 ()

2.2. (나눔2) 바울은 효율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서로의 사랑의 동기를 먼저 인정해주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에, 주류 의견과 달라 소외된 소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소수의 의견까지 포용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포용과 용납, 용서와 화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삶을 향한 결어(結論)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그의 책 '배제와 포용(Exclusion and Embrace)'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이 보여주는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라. 그것은 인간의 적대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소외된 인류를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 안에 공간을 만드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의 수혜자는, 이 은총의 원리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은총의 결과로 우리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 개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존재 안에 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해 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